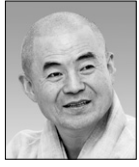


일 주 문



육군훈련소법당건립기금전달
한국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3월 30일 열반제일을 맞아 조계종 군종교구에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석종사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충주 석종사 금보선원장 혜국 스님은 대전충청지방문화재단을 맞아 3월 8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사찰로 석종사를 지정받았다.



인드라망 정기법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4월 18일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보현행원10대품을 주제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576-1886



원흥화쟁회 정기총회 및 현판식
조계종 원흥화쟁회 회장 만당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4월 16일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 (06)2385-1336



세계불교대권도연맹 격파명인전
세계불교대권도연맹 총재 해안 스님은 4월 24-25일 대전시청광장에서 '제1회 한국전통무예전국대회 격파명인전'을 개최한다. (031)964-5867



불교상당개발원 원장 담교 스님은 4월 17일 종로 통일빌딩 5층에서 상담자 윤리를 주제로 4월 월례 특강을 개최한다. (02)737-8803



불교상당 및 심리치료 포럼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4월 25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불교상당 및 심리치료 포럼을 개최한다. (02)719-2606



동국대 4·19 등산대회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4월 9일 북한산 일원에서 '4·19혁명 50주년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 성지순례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4월 28일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이주여성들이 함께하는 서울시티투어를 개최한다. (02)722-2110

회칙

유철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주임과 밀교신문 김보배 기자는 4월 1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목화웨딩문화원 2층 르네상스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02)538-3300

interview

“불교포교, 문화지킴이 운동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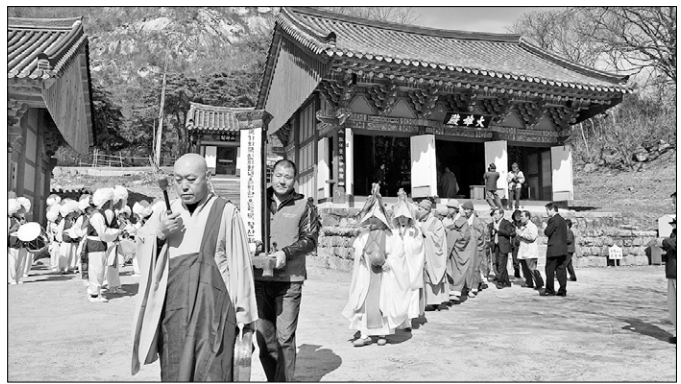
제2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지금 내 나이에 모든 걸 털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이런 큰일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평생을 문화와 예술 속에서 살았는데, 남은 여생도 이 같은 일에 더욱 봉사하라는 뜻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7년 출범했다. 유영구(KBO,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초대 이사장을 이어 김종규(사진)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이 4월, 제2대 이사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영어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라는 뜻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신탁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에게 신탁 받은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회운동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1895년 시작돼, 100년이 넘는 동안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한국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유영구 초대 이사장은 그런 면에서 기초적인 발판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 이사장은 “우리문화재 중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지만, 지키고 보존해야 할 불교문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불교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포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김종규 이사장은 독실한 불자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불교계 문화유산의 허술한 관리와 실정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울 부암동 현진건 생가도 무자비한 개발로 허무하게 헐려버린 사례입니다.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존하는 문화유산 중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들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문화유산들은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관리가 부실하기 쉽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부신탁문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이 김종규 이사장의 입장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첫 사업으로 전남 보성여관의 복원을 진행했다. 보성여관은 한국에 드물게 남아있는 일본식 여관이다.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된 시대적 생활상과 문화를 가늠해 한다.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당산재



영국사 당산재는 1200년 수령의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온 지역민이 하나로 뭉치는 장이 됐다.

영동 영국사(주지 청원)는 4월 4일 제1회 은행나무 당산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황룡사 종림 스님, 장인학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장, 정구복 영동군수, 이용택 국회의원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당산재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은행목 당산재’ 신위를 대웅전에서 모셔오는 의식으로 시작으로 소지법회, 살풀이굿이 이어졌다.
청원 스님은 “사라져가는 전통의식을 복원해 화합과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고자 당산재를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경북 재가연대 회장 이·취임식



참여불교 대구경북 재가연대의 제2기 회장에 김주동(사진) 영진전문대 겸임교수가 취임했다.
참여불교 대구경북 재가연대는 4월 7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유병선

조계종 대구시 신도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주동 신임회장은 취임사로 “교단과 사회의 청정한 변화와 봉사회향의 삶을 통해 참사람공동체의 창립 목적에 맞게 뿌려진 씨앗을 잘 가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불교 대구경북 재가연대는 참여불교 재가연대의 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1997년 3월 창립해 박은식 초대회장이 이끌어 왔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구미 한마음수련원 개원

구미 한마음수련원(원장 지혜 법사)은 3월 28일 구미 선산마을에서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천안 만일사(주지 마가)와 ‘나눔의 기쁨 공동체’ 등 지역 불교계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한마음수련원은 경전공부, 수련, 수행 및 인성 상담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혜 법사는 “한국불교에 새로운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 신행의 꽃을 피우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54)482-0700
손범천 대구지사장

모바일 포교 모색

포교정책연구회

스마트폰 100만 가입자 시대에 아이 폰 등에서 모바일 포교를 모색하는 정책연구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은 4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모바일 포교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제37차 포교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송주실 포교연구실 주임이 ‘종단 모바일포교를 위한 기반과 지향’을, 박준규 SK솔루션사업팀 대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전략’을, 김종민 이미지 홀딩스 대표가 ‘불교콘텐츠 Social Publishing(사회적 출판) 플랫폼’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문화부, 교육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가 참석해 모바일 포교 대안에 종단 실무자간 중지를 모으게 된다. 한편, 사회적 출판(Social Publishing)은 사회적·공익적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기획·출판하는 일련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조동성 기자

Advertisement for '부처님의 생애' (The Life of Buddha) book. Includes details about the book, a contest to win i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Jo-gye-jong-pub.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a person reading it.